약용작물 GAP 시범시행 1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난해 농림부는 국산한약재의 고품질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5개 약용작물(구기자, 당귀, 맥문동, 작약, 황기)에 대해 GAP를 첫 시행했다. 농진청 농관원 생약협회 등이 함께 관리한 GAP 시범시행 1년! 시행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과 농가 애로사항 그리고 향후 보완 및 개선돼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생산농가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품목별 안전성 기준 모호, '혼선'
체계적인 GAP 농법 개발 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GAP담당(종자기술사) 장택준

현재까지의 한국농업은 식량자급이라는 명제 아래 주곡 위주의 증산정책에 역점을 두어 농업이 영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도 과일·채소·화훼류 등의 원예작물은 많은 연구와 정책적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나 소량생산 작물인 약용작물은 그 동안 정책적인 지원 또는 보호 대상에서 거의 도외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60년 내지 70년대만 해도 약용작물의 재배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으나 한·중 수교 이후 급격히 늘어난 중국산 한약재의 저가공세에 밀리어 이제는 거의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극소수의 뜻있는 독농가들에 의해 재래종 위주의 약용작물이 면면히 재배되어 우리의 건강을 지켜왔고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2003년은 약용작물 GAP가 시작된 첫 해이면서 이제는 정부가 약용작물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의 약재를 살려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뜻있는 한해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속담에 「好事多魔」라는 말이 있듯이 약용작물GAP 시범사업이 실시된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를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약용작물 GAP재배포장의 지력쇠퇴로 수확량 감소

GAP재배는 일종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방법으로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력을 높이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퇴비등 유기질비료가 충분히 토양에 공급되지 않고 감 화학비료 및 감 농약의 방법을 우선하다 보니 일반재배에 비하여 30~40%정도의 감수현상 발생하였다. 따라서 GAP농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충분히 부숙된 퇴비 등으로 지력을 증진시킨 후 GAP농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하절기동안의 지속된 강우로 병충해발생의 만연

여름동안의 지속된 강우로 일조부족에 의한 광합성저하, 저온현상 및 공중습도 증가로 인한 각종 병충해 발생의 만연으로 생육감소, 결주발생, 농약사용의 필요성 증대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병충해 발생을 억제하려면 질소질 비료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퇴비의 등 유기질비료의 사용과 인산, 칼리, 석회, 마그네슘, 철분, 망간 성분 등의 비료를 충분히 투여하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의 재배,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는 유리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등 전천후 시설재배로 전환하고 광(光) 및 CO2 비료 등을 인공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시설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雜草繁成에 따른 제초작업으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

일반작물에 비하여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잡초가 繁成하여 제초작업을 위한 일손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20~30%이상 증가하므로 안정적인 제초작업 및 토양유실방지, 토양적습유지, 토양온도상승 등을 위하여는 투명비닐 또는 부초법 등으로 토양피복을 하여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약용작물의 잔류농약·중금속 등 안전성기준 미비

농가에서 농약안전성분석을 위한 시료의뢰를 요청할 경우 약용작물을 한약재로만 규정하여 수확물의 잔류농약·중금속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약사법에 의한 "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과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명확한 안전성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곧 농림부·농진청·식약청 등이 협의하여 한약재에 대해서도 명확한 안전성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농촌진흥청에서 품목별로 실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들을 자세히 파악,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 시험을 실시하여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생산·유통자금지원 등의 배려 부재

원예작물, 축산물, 정부비축 농산물 등에서는 정부의 생산·유통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고 있으나 약용작물에서는 거의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GAP제도가 정착하게 되면 타 부문에 못지 않은 배려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기술센터의 관심저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GAP약용작물재배 교육 또는 현장지도 등에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성실한 지도사업이 뒷받침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생약협회와 생산농가 등과 면밀한 정보공유로 안정적 생산교육 및 지도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할 것이다.

우수종자의 생산체계 미흡

식량작물이나 수박, 배추, 고추 등 원예작물의 육종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으나 약용작물은 아직 우수품종의 육성실적이 낮은 편이다. 약용작물 재배농가는 약효·병충해저항성·수량 등에서 우수한 품종을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 여의치 못하다. 정부와 학계·민간 육종가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빠른 시일내에 세계에 내놓을 우수 약용작물 신품종을 바라는 만큼 창성·보급하기 바란다.

약용작물GAP에 대한 교육 및 해외 선진지 시찰 등 프로그램 부재

시행 첫해인 GAP재배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선진지 시찰 등의 프로그램이 없었으나 GAP예산이 원활히 확보된 2005년부터는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옛말에 「첫술 밥에 배부르랴」라는 격언이 있다. 이제 시작이 된 만큼 시간이 흐르다 보면 GAP재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이 따르게 될 것이고, 한약재의 선진국인 중국·일본 등의 선진지 시찰 기회도 부여될 것으로 본다.

GAP약용작물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부족에 따른 판로의 불투명

2003년도에는 급작스런 GAP사업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충분한 GAP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5년도부터는 정부에서도 대소비자를 위한 TV·신문·라디오·잡지·와이드칼라·LED전광판 홍보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생약협회 및 약용작물 생산농가 등도 함께 GAP약재류의 우수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게 되면 머지 않아 그 공은 스스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약용작물 GAP제도의 국내도입 경위

"한방약물의 국제화 추진 계획" FHH 발표에 자극받아

중국이 2002. 3. 18일자로 「한약재생산품질관리규범(시행)」을 국가약품감독관리국령으로 고시하여 2002. 6. 1일부터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였고, 국내 한약재 생산량이 1995년도에 4만2천톤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2001년에는 3만톤 수준으로 감소하여 급기야 국내 한약재의 자급율은 43% 수준으로 저하되었다.

한편, 「우수한약재재배관리규정(한약GAP:Good Agricultural Practice)」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약(생약)규격국제화포럼(FHH:Forum on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에서 한방약물의 국제화(표준화, 규격화)추진 계획의 발표에 자극을 받아 2002. 4월 국내에서도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한약(생약)국제규격화 포럼」을 결성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우수한약재재배관리규정(GAP)재정관련 농림부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한약재취급 관련기관·단체·약용작물재배 농업인 등에게도 널리 알리고 농림부장관에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농림부장관은 "국내산 약용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GAP인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사)한국생약협회, 농협중앙회, 농림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전년도에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지침(GAP)」을 제정, 2003. 3월에 충남 청양, 전북 임실, 강원 평창, 경기포천 등 4개 시군을 필두로 구기자·맥문동·작약·당귀·황기 등 5품목에 대하여 우수약용작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생약협회가 주관이 되어 시작한 약용작물GAP 시범사업은 한국의 농업사에서 「우수농산물재배(GAP)의 효시」로 서막을 장식하였고 한 페이지의 역사로 길이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